

산뜻한 /타/이/거/즈/의 '봄'



브렛 필 3안타
“방망이 필 받았어”



양현종 노히트 “에이스 감 잡았어”



어센시오 마무리 “150km 광 찍었어”



무릎이 닳도록 뛰었나?

박지성 아인트호벤과 계약 연장 무릎부상 정도에 달려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아인트호벤이 박지성의 임대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007년 수술을 받은 박지성의 무릎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언론 텔레스포츠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11일(한국시간) 마르셀 브란츠 아인트호벤 기술이사의 말을 인용해 “아인트호벤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OQR과 박지성과의 임대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지난해 8월 잉글랜드 첼시에서 2부리그 QPR에서 친정팀 아인트호벤으로 1년 임대됐다. 오는 8월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박지성은 어린 선수가 많은 아인트호벤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지난 9일에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필립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 정규리그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 윌트레흐트를 1-0으로 꺾는데 역할을 했다. 이날 승리로 아인트호벤은 6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무릎이 박지성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이었던 지난 2007년 4월 오른쪽 무릎 연골을 심하게 다치면서 무릎연골 재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8개월 뒤인 2007년 12월 선덜랜드전을 통해 그라운드에 복귀했지만 이후 조금만 무릎을 하면 물이 차는 등 무릎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었다.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에 공을 들였던 홍명보 대표팀 감독 역시 “박지성의 무릎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국내 언론에 박지성의 무릎 상태를 언급한 적이 있다.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는 아인트호벤이 박지성의 무릎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브란츠 기술이사는 “QPR과 박지성의 임대 계약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의 체력이 중요한 변수다”고 말했다.

텔레스포츠포스트 박지성의 무릎 부상에 대해 다루며 부상 정도가 아인트호벤과의 계약 연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터져야 할 때 터지고, 막아야 할 땐 막고... 넥센과 시범경기 6대1 승리

KIA, 왠지 느낌이 좋다



KIA 양현종이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4이닝 노히트노런을 장식하며 에이스 등극을 예고했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양현종은 12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4이닝 동안 피안타없이 12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고집적인 초구 제구가 좋지 못했지만 최고 147km를 찍은 직구의 위력이 넥센 타자들을 압도했다.

양현종은 1회말 선두타자 서건창과의 승부에서 볼 두 개를 연달아 던지는 등 풀카운트에 몰렸지만 2루 땅볼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강지광과 윤석민은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회를 마무리했다.

2회에는 세 타자와의 승부에서 초구가 모

두 불이 됐지만 공격적인 피칭으로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강정호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김민성과 오윤을 각각 3루수 앞 땅볼, 포수 파울플라이로 요리했다.

3회 1사에서 박헌도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처음으로 1루 베이스를 허용한 양현종은 허도환을 상대로 3루수 앞 병살타를 유도하며 이닝을 마무리 했다.

4회에도 강지광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며 세 번째 탈삼진을 뽑는 등 역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쳤다.

양현종 특유의 힘있는 직구가 돋보인 경기 운영이었다. 52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35개를 직구로 선택했다. 슬라이더 6개, 체인지업 6개, 새로 연마한 커브도 5개를 던졌다.

박경태-김지훈-심동섭-어센시오로 이어진 볼펜은 1실점으로 넥센의 강타선을 막으

며 6-1의 승리를 합작했다.

5회 박경태가 강정호와의 승부에서 초구를 강타당하며 우월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이날 유일한 실점이었다.

프로 첫 등판에 나선 김지훈은 첫 타자 김지수에게 중견안타를 허용했지만 김주형의 호수비 등에 힘입어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8회 출격할 심동섭은 제구 난조로 세 타자를 연속해서 볼넷으로 내보낸 뒤 이후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자초한 위기에 스스로 불을 껐다. 마무리 어센시오의 거침없는 투구도 계속됐다. 어센시오는 탈삼진 두 개를 더하며 두 경기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무안타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필은 3안타를 터트리며 그동안의 부담감을 훌훌 털

어냈다. 이날 3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한 필은 첫 타석에서 좌전안타를 때려낸 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쪽으로 공을 보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을 가르고 대주자 박기남과 교체됐다.

한편 전날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가동시킨 나지완은 1회초 1사 1·2루에서 넥센 선발 나이트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려내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양현종은 “밸런스가 좋지 않았는데 김상훈 선배가 낮게 유도를 잘 해주셨다. 특별히 어떤 구종을 시험하기 보다는 포수 리드에 따라 공을 던졌다”며 “투수 관리 등을 위해서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이 좋지 못했다. 다음 등판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콜로라도와 시범경기 홈런 맞고 2실점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의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베테랑 투수 임창용(38)이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 고군분투했다.

임창용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컵스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2014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1이닝 동안 안타 1개(홈런), 볼넷 1개를 내줘 2실점했다.

토니 지크에 이어 8회초 팀의 여섯 번째 투수로 등판한 임창용은 첫 타자 팀 윌러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두 번째 타자 라이언 윌러에게는 1볼-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맞았다.

다음 타자 벤 폴센이 2루수 실책으로 출루해 위기가 이어졌으나, 임창용은 제이슨 프라이디와 잭슨 윌리엄스를 각각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크리스찬 애덤스의 타석에서는 폭투가 나와 폴센이 2루까지 나갔다. 임창용은 애덤스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내 한숨을 돌렸다.

임창용은 9회 브라이언 슈리터에게 마운드를 넘기며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임창용

임창용의 평균자책점은 9.00으로 치솟았다.

컵스는 콜로라도에 0-13으로 졌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